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

— 블로그 글쓰기 등

김지연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인터넷 공간과 글쓰기

볼터(Bolter, 2009)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후기 인쇄 시대’라고 명명하며 이전과는 다른 공간에서 필자가 글을 쓰고 이를 소통하게 되었음을 역설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책이나 잡지 등의 인쇄 매체는 여전히 가치 있고 위력적인 자료로 기능한다. 그러나 인쇄 매체는 이미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학술적 지식을 조직하고 제시하는 데에 더 이상 인쇄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층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고 이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표현 방식을 동원한다. 이렇게 매체가 발달할수록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은 점차 거대한 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것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글쓰기의 상호작용성을 한층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인터넷이 만든 가상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독자들이 수동적인 위치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단편적인 수용자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를 배포하고 유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었던 예전과 비교해 콘텐츠 소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대중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명승은, 2008). 이것은 분명 이 시대의 읽기, 쓰기가 갖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소통되는 텍스트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대개 이들은 영상과 이미지, 문자가 결합된 복합 양식 텍스트의 성격을 띤다. 크레스(Kress, 2003)는 복합 양식적으로 ‘디자인’된 텍스트를 읽는 경로와 연속된 인쇄 텍스트를 읽는 경로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기’와 ‘말하기’의 차이로 보았다. 즉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읽기, 쓰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읽기, 쓰기가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Lankshear et al., 2002).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읽기, 쓰기는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규모의 재빠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Lankshear & Knoble, 2003).

2. 디지털 원주민과 인터넷 글쓰기

현재 10대 학생들을 일컬어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고 지칭한다. 이 말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세대라는 의미다. 환경이 변하는 만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의사소통 참여자들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과 달리 디지털 원주민들은 삶의 상당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새로운 지식과

예술 형태를 창조한다는 점이다(Palfrey, 2008). 이렇게 21세기 학습자들은 컴퓨터, 디브이디(DVD), 비디오, 휴대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과 같은 신기술을 활발하게 이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어린 학습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이들을 변화시킨다.

인터넷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후속 세대들이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글쓰기와 이후의 글쓰기 양상은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분명 인터넷이 있다.

3. 인터넷 플랫폼의 발달

인터넷이 야기한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은 ‘글쓰기 공간(writing space)’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이전의 소통 과정에서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한정된 매체를 사용하였으나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활동하는 사용역(域) 또한 확장되었다. 이러한 글쓰기 공간 변화를 ‘플랫폼(platform)’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플랫폼은 ‘정거장’ 또는 ‘승강장’이란 뜻으로 통용된다. 현실에서의 정거장은 ‘이용자’가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곳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한 ‘운송 수단’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두 요소(이용자, 운송 수단)가 반드시 존재해야, 정거장이 정거장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정거장, 즉 플랫폼은 사람과 운송 수단이 만나는 접점 또는 사람과 운송 수단을 매개하는 매개 지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글쓰기 공간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가상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 공간의 차원 역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원래 플랫폼은 정보 기술(IT) 분야에서 먼저 확산된 용어인데,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구조’

란 의미망을 가지고 컴퓨터 운영 체제(OS)와 같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다. 현재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각각도 하나의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만큼 인터넷 공간이 다양하게 분파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플랫폼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쓰기에도 이러한 플랫폼의 개념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플랫폼의 발달은 텍스트 생산 과정 역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공책과 화선지 등도 하나의 텍스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다른 플랫폼이라 구분하기 힘들 만큼 상호 간의 공통분모가 매우 컸다면, 지금은 각자가 다른 시스템과 다른 작동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 연계되기가 쉽지 않다. 즉 예전에는 공책이든 화선지든 종이에 필기구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 기본적인 속성에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플랫폼은 각자의 체계(system)와 틀(frame)을 구축하고 있고, 또 의사소통 참여자(user)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성(space)을 지녔으며, 그들의 상호 작용성(interaction)에 따라 더 많은 참여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module)과 양식(modes)이 생겨나거나 사라지고, 또 시도되는 모습도 보인다. 그 자체가 진화하는 유기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 플랫폼의 발달과 글쓰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매체의 발달은 앞선 시대를 배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의 것과 겹치고 포개지며 안정적인 형태를 잡아 간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플랫폼의 발전에서도 유사하게 보이는 특징이다. 이에 대해 이성규(2009)는 블로그와 에스엔에스(SNS) 플랫폼이 역시 서로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능을 껴안고 동질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향후 새로운 플랫폼이 생성되는 과정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플랫폼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는 결국 기존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이지만 각 나라의 사용자들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해외 트위터 이용자들은 주로 정보를 얻는 데 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맥을 넓히거나 친목을 다지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에스엔에스의 성향이 트위터까지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그전 페이스북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들의 문화적 환경과 특성에 따라, 사용의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개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공공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 및 분쟁 등도 역시 상당히 개성적인 부분이다).

5. 인터넷 의사소통의 특성: 복합 양식성

새로운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자.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사소통 공간이 면 대 면과 인쇄 매체에서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된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인쇄 매체의 쪽(page)과 화면(screen)은 보이는(display) 장(場, sites)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기능과

1) 이성규(2009)는 한국에서의 콘텐츠 제작 틀이 ‘홈페이지→카페→미니홈피(싸이월드)→블로그’로 이동해 왔으며, 이것은 곧 ‘단절된 개인→공동체→제한된 공동체 지향 개인→공동체 지향 개인’이라는 진화의 흐름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상호 작용의 차이를 가져온다. 주잇(Jewitt, 2006)은 이 차이를 실제 교실에서 살펴보면, 이전의 고정되고 선조적이던 양식과는 달리 화면으로 구현되는 양식은 한층 역동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상황이 조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안에서는 정보를 ‘전시’하는 이상의 작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화면에서는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구현될 수 있다. 즉 보이는 것과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대면의 의사소통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다른 공간에서 ‘보는’ 것으로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책과 화면뿐 아니라 실세계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경험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된다(Goffman, 1983).

매클루언(McLuhan, 1964)은 일찍이 “매체(Media)는 메시지다.”란 말을 주창해 왔다. 매체의 변화는 곧 메시지의 형식을 결정하며, 그 달라진 형식으로 인해 메시지의 표현 양상, 범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란 매체가 메시지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상호 소통성이겠으나, 그것과 함께 현재 스크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합 양식 텍스트’라는 점이다. 단일 양식 텍스트와 복합 양식 텍스트가 갖는 기호학적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크레스와 판리우웬(Kress & Van Leeuwen, 2001)은 복합 양식을 ‘기호학적 생산물과 이벤트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호학적 모드를 사용하는 것(The use of several modes in the design of a semiotic product or event)’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렇게 텍스트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표현역(域)과 표현 효과의 범위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6. 텍스트, 복합 양식 텍스트

복합 양식 텍스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텍스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예전에는 텍스트가 인쇄물의 한 구절이나 말의 일부분, 혹은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었다. 예로는 책, 잡지, 신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텍스트는 글로 쓰인 것 이외에도 말, 대화,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광고, 문자 메시지, 신문의 사진 등과 같은 ‘담론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Lankshear et al, 2002; Evans, 2004).

종래의 문자 언어 중심 소통에서는 소통의 매체가 문자 언어였다. 혹 문자 언어에 약간의 그림이나 삽화가 곁들여진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중심 매체는 문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에 의한 다매체적 소통은 문자 언어는 물론 그 이전의 소통 매체였던 음성 언어, 그리고 선과 색까지 포함하는 영상 또는 동영상까지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주변 환경이나 맥락 속에서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양식(modes)을 다 포함하고 있는(노명완, 2012)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다양한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일컬어 ‘복합 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라고 한다.

복합 양식 텍스트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텍스트를 뜻하는 용어로, 어느 한 가지 형태의 기호로만 구성된 텍스트를 뜻하는 ‘단일 양식 텍스트(monomodal text)’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디지털 텍스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복합 양식 텍스트인 경우가 많다(Bearne, 2004). 물론 기존의 인쇄 매체 텍스트가 모두 단일 양식 텍스트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통용하는 텍스트들은 온전한 단일 양식 텍스트를 찾아 보기 힘들다. 다만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텍스트의 복합 양식성이 이전의 인쇄 매체 텍스트보다 더 확장되어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인쇄 매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 또는 글자체와 지면 편집 등과

같은 것이 인쇄 매체 기반의 표현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디지털 매체에서는 음성과 영상, 하이퍼링크 또는 이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관념을 표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상 양식을 함께 사용한다. 말을 할 때 몸짓이 동반되거나, 어떤 관념을 소통하기 위해 그림을 사용하는 것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문자 언어 의사소통 시대 상황에서도 텍스트는 언제나 복합 양식적 요소, 혹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글과 이미지의 두 가지 표상 양식을 결합해 만든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읽기 교육에서 오랫동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각 사회가 가진 저마다 다른 기술은 책, 잡지, 컴퓨터 화면, 비디오, 영화, 라디오 등과 같이 의미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표상 양식과 미디어의 결합은 읽기·쓰기(문식성, literacy)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Bearne, 2004).

옥현진(2008)은 양식(modes)에 대해 ‘물리적인 도구와 기호 체계를 이용해 사회 속에서 의미를 실현하는 독특한 방식’이라 정의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당대 사회에 주로 통용되는 물질과 기호 체계를 이용해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붓글씨 쓰기는 붓, 먹, 화선지라는 물리적 도구를 가지고 문자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양식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묵화 그리기는 같은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또 다른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붓글씨 쓰기와 수묵화 그리기가 서로 다른 양식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이 두 양식에 사용된 기호 체계가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서화(書畵)는 이 두 가지 양식이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형태의 텍스트이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 다른 양식에 대한 이해 위에 이들을 서로 결합하여 복합 양식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복합 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이라고 한다. 즉 현대 시대의 쓰기, 읽기는

바로 이 복합 양식 문식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복합 양식 텍스트는 독자들의 수용 방식, 즉 읽기 경로(reading path) 또한 변화시켰다(Beame, 2004). 예를 들어, 이야기를 연속적인 인쇄 텍스트로 읽을 때 독자는 연속된 문장들을 통해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을 듣게’ 된다. 반면에, 이미지를 읽을 때에는 공간 속에 놓인 이미지를 통해 어떤 생각이나 대상의 의미 관계를 ‘보게’ 된다. 연속된 인쇄물의 읽기 경로는 명백하다. 즉 서구식 인쇄물의 경우에는 읽기 경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미지, 텍스트의 덩어리, 활자체, 색깔 등이 책의 ‘양쪽 면에 펼쳐진 텍스트’의 읽기 경로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비록 독자의 시선을 지시하는 서구적 텍스트의 관습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독자는 자의적으로 읽기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복잡한 그림, 혹은 복합 양식 텍스트에서 읽기 경로는 주변부와 중심부가 끊임없이 연관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포털(portal) 사이트의 기사들에 더 눈에 들어오는 기사 제목을 게시하고 더 화려한 디자인의 광고 배너를 배치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양하게 분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글의 주목도를 유지해야 하는 필자에게 더 다양한 전략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

다양한 표상 양식으로 구성된 텍스트의 전체를 읽는 일은 더 복잡하다. 소설과 같이 연속된 인쇄 텍스트에서 주제의 연결은 언어의 반복, 암시, 추론 등을 통해 제시된다. 반면에 그림책에서 주제의 연결은 주로 이미지, 색, 모양, 그리고 페이지 위의 배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읽기 방식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 인쇄 텍스트를 읽을 때 언어의 의미를 추론하며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즉 이런 복합 양식 텍스트를 어린이에게 가르칠 때는 그들로 하여금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문장과 문맥을 읽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미지 너머에 있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관계, 혹은

다양한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를 묘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휘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7. 블로그의 글쓰기

블로그는 복합 양식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블로그는 정해진 틀을 가지고 시간 역순으로 게시되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블로그 글, 포스트에 종종 댓글(comment)을 달기도 하고 특정 사이트 주소(URL)를 가진 글을 엮어 쓰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블로그를 사이드바에 게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블로그들의 집합체를 일컬어 ‘블로그스피어(blogosphere)’라 한다(Schmidt, 2007).

1인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웹상에서 개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한다면 필자가 시간 순으로 자신의 생각과 글을 일목요연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 유사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다. 블로그는 필자와 독자, 필자와 다른 필자 간 논의를 풍성하게 해준다(Ewins, 2005).

능숙한 필자는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의 텍스트를 소통할 공간과 잠재 독자를 상정한다. 필자는 글을 쓰기 위해 기본적으로 문자를 습득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시대 관습을 익혀야만 한다. 한 필자가 텍스트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은 저절로 이뤄지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 과정에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 규약과 가치관이 개입된다. 필자로서의 정체성은 개인이 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실천의 장 속에서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서수현, 2010). 즉 필자를 둘러싼 다양한 영향 요인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의 텍스트가 생산되는 것이다.

현재 글쓰기 공간에서의 글쓰기는 필자의 단독 작업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독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공동 작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저자’가 있으되 같이 텍스트를 만들어 가는 ‘공저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에스엔에스가 발달하면서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텍스트의 유통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제 더 이상 필자와 독자의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다 함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수용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텍스트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나 소통 윤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 글쓰기 공간은 텍스트가 보이는 컴퓨터 화면과 텍스트들이 저장 되는 저장 메모리 모두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블로그의 글쓰기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글쓰기의 기계화는 15세기 활판 인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쇄기가 고전적인 글쓰기 기계라면 컴퓨터는 기계화 시대를 넘어서는 글쓰기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고대와 현대의 글쓰기는 글로 된 생각들을 시각적인 공간에 배치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이라 할 수 있다. 펜으로 양피지에 글을 쓰는 것은 인쇄기로 쓰는 것과는 다른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만 글쓰기가 내면화됨으로 인해 이것을 과학기술이라 인식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뿐이다.

8. 전문 블로거들의 글쓰기

이 글에서는 세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파워 블로거’를 ‘전문 블로거’라는 말로 재정의하여 부르려고 한다. ‘블로그 환경에서 전문성을 갖고 꾸준하게 글쓰기를 하는 필자’라는 의미의 ‘전문 블로거’라는 용어는 이미 미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블로거들의 글쓰기는 일단 컴퓨터를 쓰기 도구로 삼는다. 그들이 수행하는 컴퓨터 글쓰기의 특징은 내용 표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문 블로거들의 글쓰기 표현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표들은 텍스트 생산 과정을 ‘주 과정’과 ‘과정 중 부가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인데, 이들의 글쓰기가 이전과 다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이전에는 글쓰기의 주 과정만이 있었다면 이제는 글쓰기의 과정이 다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 블로거가 구축하고 있는 글쓰기 패턴(pattern)은 컴퓨터 글쓰기보다는 ‘온라인 글쓰기’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온라인 글쓰기는 컴퓨터 글쓰기를 전제하고 있지만, 글쓰기 공간의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 블로거가 이전의 전문 필자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그들이 글쓰기 과정 대부분을 스크린 안에서 소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글을 쓰기 직전까지 오프라인에서 글의 내용을 고민하는 반면, 온라인에 진입하여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다양한 자료를 글쓰기 공간 내에서 동원하고 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 표를 보자.

표 1 ‘필자 1’의 내용 구성 과정

시간	글쓰기 과정(main)	과정 중 부가 행동(sub)
00:17	로그인 후 ‘편집기 창’ 열기	
00:25	포스트 범주 설정	
00:35		‘이미지 입력 창’ 열기
00:49		내 컴퓨터 폴더 검색 미리 정리해 둔 사진 삽입(23장) ‘이미지 입력 창’에서 순서 조정
03:19	편집기 내 이미지 업로드	
03:32	포스트 제목 입력	
03:41	사진 배치 확인	
04:21	사진 간 글 입력 간격 확보	
05:36	문단 가운데 정렬 후 글쓰기 시작 사진별로 옮겨 가며 글 입력 각 사진별로 입력, 수정 작업 후 이동	

표 2 '필자 2'의 내용 구성 과정

시간	글쓰기 과정(main)	과정 중 부가 행동(sub)
00:10	로그인 후 편집기 창 열기	
00:28		컴퓨터 내 이미지 검색 후 추가
00:49		입력기에서 이미지 순서 조정(7장)
01:09	이미지 업로드, 링크 삽입	
01:25	새 창 열고 블로그 글 검색 복사 글 첨부	예전 글 복사
02:09		이미지 복사
02:00	HTML 편집기 모드 전환 후 소스 편집	
02:40	복사 이미지 첨부 시리즈 포스트임을 명시	
03:30		예전 글 열어서 리뷰 포스트 메뉴 삽입
04:30	이미지, 링크 사이에 글 첨부 문단 가운데 정렬	

표 3 '필자 3'의 내용 구성 과정

시간	글쓰기 과정(main)	과정 중 부가 행동(sub)
00:05	로그인 후 편집기 창 열기	
00:07	포스트 범주 설정	
00:20	제목 입력	
00:53	글쓰기 시작 소제목 입력 글씨 모양, 크기 편집	
02:43	소제목 사이에 글 쓰기 글쓰기 중에 글씨 모양, 크기 편집	

‘필자 1과 2’의 경우 사진기로 찍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미리 포토숍(photosho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포스트에 맞게 디자인한 다음, 이메일이나 웹하드 등에 저장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둔다. 이것은 그들이 일을 하는

틈틈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글쓰기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글쓰기 자료는 온라인 상태에서 저장되어 어느 곳에서나 동원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하는 것이다. ‘필자 3’의 경우도 글을 작성한 다음, 그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이나 다양한 블로그 포스트,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 등의 화면 장면 갈무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전의 글쓰기 환경에서는 내 글에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필름이 들어간 사진기로 직접 사진을 찍고 인화하여 현상한 다음 이 사진을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인쇄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사진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사진기에서 바로 이미지 파일을 추출한 후 첨부하거나 화면을 장면 갈무리하거나 검색을 통해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간단하게 스크린 안에서 ‘새 창’을 띄우는 작업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글쓰기 장면 갈무리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전문 블로거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글쓰기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는데, 이것 역시 인터넷 브라우저(browser) 또는 툴바(toolbar)와 같은 플랫폼의 선택과 관련이 깊다.

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블로거들이 창을 하나 더 띄워 둔 상태에서 정보 사이트를 오가면서 반복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포스팅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독자가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본문에 링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쩌면 인터넷 시대의 전문 필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점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전 시대에는 자료의 수집 자체가 가치를 지니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수많은 자료(big data)가 존재하며 (Manyika J. et. al., 2011), 필자는 이를 더 효율적으로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색 엔진에 대한 고민, 적합한 정보와 이미지의 선별, 사실 확인(fact checking) 등은 필자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가 될 것이다. 정보를 많이 검색하여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의 정보(curation)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Rosenbaum, 2011)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9. 인터넷 시대의 필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표현의 욕구'를 갖는다.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남기는 방법은, 예전의 경우 자신의 일기장이나 공책 등에 적어 놓고 보관하거나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전부였다. 적극적인 필자라면 기존 대중 매체, 즉 영화 잡지 또는 신문에 독자 투고를 하거나 방송국에 시청자 의견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이 글에 등장하는 블로거들 중 몇몇은 이전에 기성 매체에 글을 보내 본 경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지면에 실리는 것은 아니었다. 기회가 있었다고 하나 그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필자들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 즉 플랫폼을 찾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필자들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유통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필자들은 단일 양식 텍스트 중심의 고정된 매체에서 쓰기를 수행해 왔다. 그 당시 필자들도 몇 가지 매체를 선택할 수는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소통과 유통, 그리고 자신의 표현역(域)을 고려할 수는 없었다. 지금의 변화를 단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필자본에서 인쇄본으로 책이 발전하게 되면서 책의 크기가 작아지고 양도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쇄물은 문자에 고정성과 영속성을 부여해 주었

으며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조적으로 디지털 텍스트는 유동적이면서 다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Bolter, 2001). 이러한 유동성은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고, 앞서 말한 복합 양식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양한 플랫폼이 발달하게 되면서 필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소통에 최적화된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들은 ‘블로그’를 중심에 둔 상태에서 역시 다양한 에스엔에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기호와 소통의 목적, 그리고 편의성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예를 들어 한 영화 블로거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블로그가 있는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가진 신속한 타임라인(time line)의 진행과 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독자들의 반응 때문이었다. 블로그의 경우 긴 글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행사의 뉴스를 짤막하게 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획한 것이다. 반면 트위터의 경우 타임라인이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역시 적절한 플랫폼이 될 수 없었다. 한 블로거는 얼마 전 정치인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간담회 현장을 트위터 르포로 증명한 경험이 있다. 또 다른 블로거는 여행을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여행 사진을 그때그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이같이 필자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조건의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점점 더 그 선택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필기구에 해당하는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피시 등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표현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들 역시 어떤 기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글쓰기 수행에 급격한

변화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50대 가정주부 블로거의 경우 디에스엘아르(DSLR)를 새로 구입하면서 큰 변화가 감지되기도 하였다. 그녀는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다. 블로그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즉 복합 양식 텍스트의 플랫폼에서 인쇄 매체 방식에 가까운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양상은 바뀌고 있었다.

10. 나가며

전문 블로그의 경우 고정적인 필자가 다수 확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글쓰기 공간은 높은 상호 작용성을 큰 특징으로 한다. 특히 다수의 독자가 읽고 반응하는 전문 블로그에는 다양한 독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표현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이용은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자로서 기능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의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익명성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두려움 없이 새로운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며, 인터넷상의 대인 관계는 실제 관계보다 더 빠르고 쉽게 형성된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보다 사회적 상호 작용과 협조성을 더 활발하게 촉진하며, 우정을 형성한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은 대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이나 유명인들이 에스엔에스 계정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독자에 대한 고려는 필자에게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다. 실제적인 독자와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블로그에서 독자의 반응은 그만큼 필자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댓글을 남기거나 트랙백을 걸어 글을 주고받아 본 적극적 독자의 경우 전문 블로거들도 이들을

분명히 의식하고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원고료 등으로 글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직업적 글쓰기가 아닌 ‘무상 글쓰기’를 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경우 많은 독자의 관심과 반응이 자신의 글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말이다. 많은 블로거들이 평소 글의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으나, 공을 들여 쓴 글에 반응이 없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다. 전문 블로거 대부분은 자신의 공간에서 글을 쓸 때 필자의 주관이 뚜렷한 편이나, 의미 있는 독자들의 반응에는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블로그 글쓰기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관계 역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맺기 때문에 참여 빈도와 노출 횟수에 따라 친분이 쌓이는 특징이 있다.

복합 양식 텍스트 생산자들이 텍스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공간은 변화가 빠르고 양상이 다채로운 곳이다. 자신이 닳고 싶은 누군가를 모방하여 그 기능을 학습하는 것을 관찰 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 온 전통적인 방식이다. 즉 사람들은 직접 경험 이외에도 다른 대상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블로거들은 이미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성인부터 어린 학생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교육 기관에서 글쓰기를 학습하지 않는다. 심지어 많은 이가 사회에서 뿐 아니라 학창 시절에도 글쓰기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결국 그들은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글쓰기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결국 군중 속에서 제각기 고독한 필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글쓰기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한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글을 읽고 쓰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분명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만큼 글쓰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그 ‘필요성’만큼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글로 연결된 시대, 우리는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명승은(2008), 《미디어 2.0 -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 한빛미디어.
- 서수현(2010), 쓰기 수업 경험과 학생 필자의 정체성 구성, 《한국초등국어 교육》 4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42~173.
- 옥현진(2008), 다중모드 문식성, 노명완·박영목 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Beame, E.(2004), 복합 양식 텍스트: 복합 양식 텍스트란 무엇이며 어린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in J. Evans, (ed.) *Literacy Moves On: Popular culture, new technologies, and critical literacy in the elementary classroom* London: Routledge. / 정현선 옮김(2011), 《읽기 쓰기의 진화》, 사회평론, 43~68.
- Bolter, J. D.(2001), *Writing Space: computers, Hypertext, and the Remediation of Pri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김익현 옮김(2010), 《글쓰기의 공간: 컴퓨터와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인쇄의 재매개》, 커뮤니케이션북스.
- Evans, J.(2004), 21세기에 필요한 읽기 쓰기의 본질 변화, in J. Evans, (ed.) *Literacy Moves On: Popular culture, new technologies, and critical literacy in the elementary classroom*. London: Routledge. / 정현선 옮김(2011), 《읽기 쓰기의 진화》, 사회평론, 29~40.
- Ewins, R.(2005), Who are you? Weblogs and Academic Identity, *E-Learning*, 2(4), 368~377.
- Goffman, E.(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 Jewitt, C. & Kress, G.(2003). *Multimodal literacy*, New York: Peter Lang.
- Kress, G. R.(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London: RoutledgeFalmer.
- Kress, G. R. & van Leeuwen, T.(2001), *Multimodal Discourse: The Modes and Media of Contemporary Communication*, London: Edward Arnold.
- Lankshear, C., Gee, J., Knobel, M. & Searle, C.(2002), *Changing Literacie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Lankshear, C. & Knobel, M.(2003), *New literacies: Changing Knowledge*

- and Classroom Learning (2nd ed.)*,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Palfrey, J.(2008), *Born Digital*, Basic Books. / 송연석·최완규 옮김(2010), 《그들이 위험하다》, 서울: 갤리온.
- Rosenbaum, S.(2011), *Curation Nation : How to Win in a World Where Consumers are Creators*, McGraw-Hill. / 이시은 옮김(2011), 《큐레이션: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명진출판사.
- Schmidt, J.(2007), Blogging Practices: An Analytical Framework,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409~1427.

